# 前 행복청장
# 투기의혹 추적기

KBS 대전

황정환 기자

2021년 3월16일 KBS대전 9시 뉴스 화면 갈무리

### 내 인생의 취재원

4·15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의 어느 날, 정년퇴직으로 평생 몸담았던 조직을 떠나는 오랜 취재원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20년 넘게 기자생활을 하며 여러 취재원을 만났지만,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를 넘어 이처럼 인간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취재원은 유일하다.

오랫동안 정보계통에서 일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지역사회 돌아가는 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었고, 본인이 몸담은 조직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부정 수령이나 음주운전 등 내부의 치부도 가감 없이 알려줘 뉴스화 할 정도로 정의감이 뛰어나 기자 초년병 때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고마운 존재였다.

특히 기자를, 그 중에서도 공영방송인 KBS기자를 사회정의를 바로잡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지지

행복청장 재임 시절 A씨 부인이 구입한 토지

하고 항상 도와주려고 했던 점이 무척 인상 깊었다.

평소처럼 그날 대화도 별달리 특별할 것은 없었다.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 충남의 작은 마을에 땅을 사놓은 게 있어서 농사를 짓고 싶다는 퇴직 후의 소박한 꿈, 정년이 10년 정도 남은 나는 앞으로 뭘 해야 하나 이런 저런 시시한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하고 헤어졌다.

그런데 2021년 봄,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호재로 부동산이 들썩였던 세종시로 옮겨 붙으며 문득 그날 취재원과의 대화가 다시 떠올랐다.

"전 행복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 있잖아? 이번에도 빠져나갔던데."

"그래요? 참, 능력도 좋네요."

"그럼. 재테크도 얼마나 잘 했는데.."

"그래요? 뭘 그렇게 사놨대요?"

"거기, 정부에서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짓는 거 있잖아? 그 주변에 땅을 많이 사놨지 아마.

지금 못해도 2배는 올랐을 걸."

당시 A씨는 재임 시절 각종 인허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의 내사 대상으로 오르내리다가 흐지부지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재임 시절 국토부가 추진하는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입수해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곁가지로 불거졌다.

그러나 당시 내사도 흐지부지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은 주요 내사 대상도 아니

행복청장 재임 시절 A씨 부인이 구입한 토지

어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줄이야.

LH 직원과 공무원, 국회의원 등의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시기여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총지휘하는 행복청장의 투기 의혹은 충분히 관심을 끌만한 뉴스거리였다.

아니, 잘 만하면 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비리를 파헤칠 수도 있는 소위 특종감이었다.

다른 일을 제쳐두고 즉시 취재에 돌입했다.

정부에서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건 2017년 7월.

A씨도 2017년 7월에 퇴임했다.

우선 A씨가 퇴임 직전에 토지를 구입했다는 기억을 떠올려,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국가산단 근처인 세종시 연서면 토지의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각오는 했었지만, 석 달간 해당 지역 토지 거래만 100건이 넘었다.

100여 건의 지번을 확인한 다음 이번엔 대법원 인터넷등기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일일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주를 확인했다. 만일에 대비해 인터넷에서 검색한 A씨 부인의 이름이 있는 지도 확인했다.

다른 취재를 병행하며 누구의 도움도 없이 무식한 방법으로 꼬박 1주일이 걸린 고된 작업이었다.

그러나 고생한 보람도 없이, 당사자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범위를 더 앞으로 확대해보려고 했지

만, 100여 건 조사에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더 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실망과 피곤이 겹쳐 더 이상 해볼 의욕도 없이 1주일 정도가 훌쩍 지났다.

그런데 웬일로 퇴임 후 1년 간 연락도 없던 취재원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황 기자, A씨가 재임 시절 토지 구입했다고 한 거 있지?

경찰청에서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아."

눈물이 날 만큼 고마운 순간이었다.

그렇잖아도 국가산단 주변 토지거래 내역을 살펴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고 했더니 하루 뒤 다시 연락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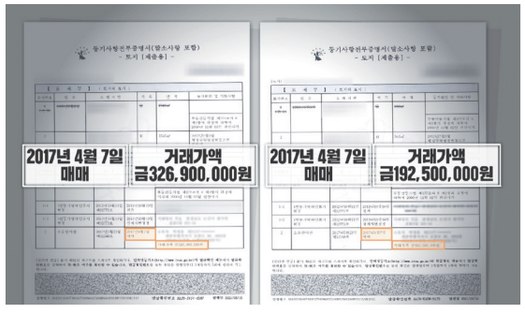
A씨 부인이 구입한 두 필지의 토지 지번과 A씨의 핸드폰 번호까지.

이처럼 완벽한 취재원이 있을 줄이야.

알고 보니 거래는 4월에 이뤄져 내가 찾아본 자료에는 없던 것이었다.

즉시 취재에 돌입했고 취재진의 전화를 받은 A씨는 크게 당황하며, 개를 키우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는 다급한 변명을 늘어왔다.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한 취재는 KBS 9시 뉴스에 전국으로 방송돼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A씨 부인이 구입한 토지 등기부등본

## 후배에게 양보한 특종

우연하게 시작된 이번 취재는 방송 때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기자 초년병 때부터 기자상 수상에 욕심이 유독 많았고, 이런 성격은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돼 기자생활에도 큰 도움이 됐다.

이번 취재도 잘 만 하면 기자상 1~2개는 충분히 탈 것 같아 취재 욕심이 발동했지만, 문제는 취재원 노출이었다.

취재원과 나와의 돈독한 관계는 지역사회에서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갖고 내가 직접 취재하면 취재원이 정보 제공자로 지목될 우려가 있었다.

특히 당사자가 수사 초기부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이미 조직을 떠난 취재원이 불필요한 법정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모든 취재 자료와 토지 등기부등본까지 사건팀 후배에게 넘겨 취재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내가 시작해 보름 넘게 진행된 취재는 결국 후배가 마무리 해 '개 집 지으려고 땅 산 前 행복청장' 이라는 제목으로

세종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1년 3월16일 KBS 9시 뉴스를 통해 단독 보도됐고, 수많은 매체가 KBS 기사를 인용해 후속보도를 이어갔다.

또, 방송기자연합회 '2021년 4월 이달의 기자상' 에도 선정되며 보도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A씨는 퇴임 이후인 같은 해 11월에도 세종시 봉암리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추가적인 투기 의혹이 제기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 말 현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퇴직자인 A씨에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법 적용을 놓고 특수본과 검찰이 이견을 보여 구속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특수본이 검찰로 넘긴 투기 의심 자가운데는 최고위직이다.

A씨가 과연 행복청장 재임 중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퇴임 전후로 토지를 매입했는지, 이러한 행위를 과연 어디까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 건설을 총지휘했던 고위 공무원과 그 가족이 대형 호재 즈음에 세종시 토지를 여러 필지 매입했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이었고, 오랜 취재원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크게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특종의 영광은 후배에게 양보했지만, 퇴임 이후에도 잊지 않고 기자의 소명을 다하는 데 도움을 준 내 인생의 취재원에게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